

젊은 연구자들의 문학사 복원작업

문헌학적 실증주의 탈피 돋보여

洪廷善

한신대 교수 · 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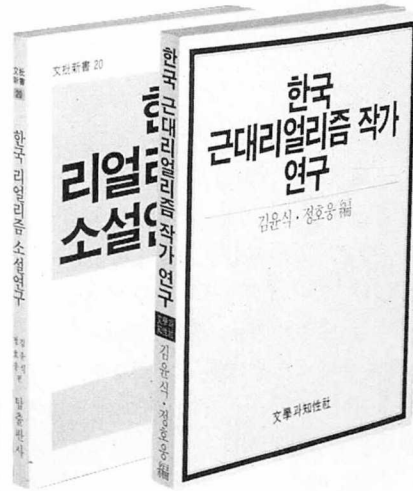
김윤식 · 정호웅 편

한국리얼리즘소설연구

탈출판사 / A5신 / 222면 / 3500원

한국근대리얼리즘작가연구

문학과학지성사 / A5신 / 378면 / 4500원



우리나라의 현대문학 연구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으며 그 동향은 어떠한가? 이 질문에 효과적으로 대답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정평있는 현대문학사를 한권 추천하면서 읽어보라고 대답하는 것이 적당할까. 아니면 대표적인 작가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대답할까. 필자는 이 모든 대답보다 다음처럼 대답하고 싶다. “전통있는 대학의 국문과 대학원생들이 써낸 논문들을 살펴보라”고 말이다.

김윤식 · 정호웅 두 사람이 펴낸 「한국리얼리즘소설연구」와 「한국근대리얼리즘작가연구」라는 두 권의 쌍둥이 책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 현대문학 연구의 수준과 동향을 정직하게 반영한다. 이 책의 필진으로 김윤식, 강영주, 윤영천과 같은 기성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람들보다는 정호웅, 박대호, 한형구, 서경석, 이강욱, 최두석 등 대학원의 학위과정 사람들에 대해 오히려 우리가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도 그 같은 문제의 가능성과 관계가 있다.

일관된 방법론으로 건설한 논리전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책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현대문학 연구의 수준과 동향은 어떤 것일까. 먼저 현대문학의 연구수준을 가늠해 보는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은 첫째, 실증주의로부터의 탈피이다. 국문학 연구가 오랫동안 매몰되어 왔던 나쁜 의미에서의 문헌학적 실증주의, 다시 말해 방법론에 입각한 논리전개가 아니라 자료의 열거와 해설에 치중하는 논리전개로부터 이 책들은 벗어나 있다. 족보를 찾고, 가족을 만나고, 무덤의 소재지를 확인하고, 친구들을 찾아 다니고, 그리하여 자신이 찾아낸 자료들을—실제로 작품해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자신의 진지하고 심각한 노력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 방대하게 열거해 보이는 서술방식에서 이 책의 글들은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

책들에 실린 연구논문들은 대체로 지금까지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대상들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특히 「한국근대리얼리즘작가연구」가 그렇다) 국문과의 유사깊은 문헌학적 실증주의로부터 적절하게 벗어나 있다는 사실은 마땅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둘째, 방법론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눈에 띈다. 각각의 논문들은, 특히 젊은 연구자들의 논문들은 한편의 논문 전체를 일관된 방법론으로 꿰뚫어가려는 진지한 열의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예컨대, 정호웅은 그의 「경향소설의 변모과정」이라는 논문에서 루카치가 말하는 바 “한 사회의 발전과정을 어떤 인물의 행위와 사고를 통해 제시하는 것”이란 ‘전망’의 의미를 우리의 경향소설에서 제시된 인물 유형의 변모에 일관되게 적용해 보고자 하며, 최두석은 그의 「白石의 시세계와 창작방법」이란 논문에서 작품의 창작과정을 통해 작가가 실현하고 있는 창작방법의 모습을 몇가지 단계로 질서 있게 추출해 보인다. 따라서 이 책들에 실려 있는 논문들은 가끔 논리전개에 무리한 점들을 보여주는 경우는 있지만, 우왕 좌왕하거나 옆길에서 방황하는 일은 없다. 이 같은 사실은 기왕의 한국현대문학 연구가 외 국문학 연구에 비해 방법론의 측면에서 상당한 취약점을 노출해 왔었다는 저간의 사정을 감안할 때 반길 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프로문학 연구의 구체적 업적

세계, 소설의 본질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논문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 장편소설의 본질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탐구를 비롯해 좀더 세분화된 인물유형의 문제, 내적 형식(Inner Form)의 문제, 인물과 환경과의 관계, 작가의 세계관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논문의 필자들은 상당한 이론적 학습을 하고

있으며, 이 사실은 논문 전체에서 자연스럽게 풍겨 나오고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한번 보기로 하자.

돌아보면 「홍수」는 그 상황의 예외성에도 불구하고 ‘박건성’이라는 인물의 건설한 매개적 역할에 의하여 탄탄한 미학적 구조를 확보할 수 있었던 셈인데, 이에 비하면 「부역」은 전형적 상황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주인공의 부재로 말미암아 평면적인 구조를 면치 못한 셈이었다. 요컨대 상황(환경)과 성격(인물)의 유기적 통일이 미학적 요체라고 보면, 예외적 상황에서의 성격의 집중에 견주어, 전형적 상황에서서일망정 성격의 분산은 보다 열악한 미적 결과를 초래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계몽을 위한 작위성을 완전히 탈각하지 못한 것이기에 리얼리즘으로서는 한정된 의미를 획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박건성의 「홍수」이지만, 형상적 예술로서의 소설적 리얼리즘으로서는 예술로서의 소설적 리얼리즘이 요구하는 미학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전형적 상황을 획득한 「부역」보다 더 고귀한 것이다.

—한 형구 「농민소설의 발전과정」에서—

이와 같은 서술은 작품을 실제로 얼마나 부합되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차원을 떠나 서술의 체계 자체만으로 볼 때 소설이 갖추어야 할 미학적인 제요건들에 대해 서술자가 성실한 학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점들은 두 권에 수록된 대부분의 논문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는데, 기왕의 국문학연구가 지닌 실증적 정신과 조화를 이루면 앞으로 우리 현대문학 연구의 수준을 명실상부하게 한단계 높은 젊은 연구세대의 등장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 두권의 책을 통해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요즈음의 젊은 연구자들이 주로 어떤 테마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현대문학 연구에 있어서의 연구동향이다. 필자는 최근 대학원 국문과 학생들 사이에서 과거의 우리 현대문학을 객관적으로 복원하기 위한—특히 프로문학 관계자료를 집중적으로 추적한 것으로—자료집의 간행이 의욕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들 자료에 대한 정밀한 독서와 상호토론을 통해 불구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분단문학을 온전한 상

태로 돌리려는 학문적 노력을 시작했으며, 그 단초를 프로문학 연구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따라서 아마도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두권의 책에 수록된 대부분의 글들은 이와 같은 노력과 연구가 구체적인 연구 업적으로 결실을 맺은 첫번째 경우일 것이다.

일반론과 개별론의 상호보완 이력

대학원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같은 연구동향은 필자가 보기에 무척 바람직한 것이다. 분단의 극복에 대한 정치적 구호가 아무리 운동권을 휩쓸거나 정치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될지라도 그러한 구호에 상응하는 연구의 토대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야말로 추상적 구호 이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현실을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을 구성하는 각 부분의 발전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 법이다. 해방 이후 반쪽의 문학사로 일관해 온 우리 현대문학계가 그 반쪽의 문학사로 분단극복에 나선다는 것은 스스로의 허구성을 노출하는 것이 상이 되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젊은 연구자들이 보여주는 프로문학 연구에 대한 왕성한 노력은 각급의 우리 현실에 대한 정직한 대응이면서 한국문학의 총체성을 올바르게 확보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작업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이 두권의 책들이 이루고 있는 관계에 대해 한두 마디 첨가하면서 이 글을 끝맺을까 한다. 「한국리얼리즘소설연구」와 「한국근대리얼리즘작가연구」는 상보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편자들의 말을 빌리면 전자가 “근대 리얼리즘 소설의 사적 전개양상을 밝히는 데 주력”했음에 반해, 후자는 그러한 사적 전개에 핵심을 이루는 대표적 작가 11명을 선정하여 “그들의 문학세계를 구명함으로써 한국 근대 리얼리즘문학 전반의 성격을 표착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론과 개별론의 상보관계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두 권의 책에서 반드시 일관되게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록된 논문들이 대체로 책을 만들기 위한 의도하에서 씌어진 것이 아니라 개별 연구자의 연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산출된 것이라 점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일관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현금의 현대문학 연구동향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생각되어 오히려 반갑다.